

제 106회 제 1차 목포시 정기 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6월 1일 상오 10시 15분
2. 폐 의: 단기 4293년 6월 1일 하오 12시 10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경인
5. 출석인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임석희 의원
6.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귀석 외 재무, 호병, 사회, 건설의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외 서무 학무 과장
7. 의사 일정
 - ◆보고사항
 - (1) 제 105회 회의록 통과
 - (2) 기타
 - ◆부의사항
 - (1) 제 106회 목포시 정기 의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8. 토의사항
 - ◇김경인 의장
 - 개회사를 하다.

◇김 경 인 의장

- 개회 선언하다.

◆보고사항

◇서기 주 도 식

- 제 105회 회의록 낭독하다.

◇김 경 인 의장

-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하다.

◇간사 김 귀 석

- 거반 의회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이 문재근씨를 제외한 4명이 당선 불 수락 또는 사퇴하였음을 보고하다.
- 어제 시내 상공업자가 데모를 하였는바 그 데모대가 하오 1시 경 내청하여 호별세 50% 인하, 불필요한 직제 폐지, 공설시장의 민영화 및 영업세부과세와 법인 동정세 전폐등의 4개 조건을 제시하기로 만부득이 서면으로 관인을 압날하여 수락하기에 이르렀음을 보고하다.

◇교육청 학무과장

- 어제 상공업자의 데모대가 도착하여 청사 내외등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액이 536,500환임을 보고하다.

◇김 경 인 의장

- 상공업자 데모가 시청 앞에서 해산한 후, 일부 몰인식한 자들이 노충을 습격하기에 이르러 노충맹원이 그 보복으로 일부 상공업자 집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피해액이 6,080,000에 달하였음을 보고하다.

◇장 영 락 의원 신상발언

- 일신상사정에 의하여 시민의 수임사명을 완수치 못하여 죄송하다. 야당이 신당으로 발족과 더불어 민주당에 가입하여 현금에 이르렀다. 본인 소유업태가 있었으나 자유스러운 운영을 못한 결과 경제적으로 활동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지조를 끝까지 지켜 비겁한 사람이 안되었다는 점이 자부스럽다.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을 유종지미를 갖어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반성하고 4.19정신을 받들어 난국수습에 협조를 바라와 신상발언에 자하고자 한다.

◇김 성 균 의원

- 금일 8일부터 시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과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김귀석씨로부터 상공인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였다는데 대하여 데모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을 감사한다. 그러나 시장의 관인을 압날하여 일시적으로 모면은 하였으나 앞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 문제를 부의하기 위하여 대 집행부에 질의할 것을 동의한다.

- 김남진 의원 입장.

(상오 10시 50분)

◇김 경 인 의장

- 상공업자 대표의 요구조건에 있어 불필요한 직책 폐지에는 이의가 없고 호별세50% 삭감에 있어서는 시 도세가 있으니 확답할 수 없으며 시장 민영화는 고려할 문제이나 영업세 부가세 및 법인 동정세를 전폐하는 경우 시청문을 닫고 시정운영이 중지할 것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앞으로 대표를 선정하여 전반적으로 협의 하고자하니 일시적으로 수락 할 것을 요구하기에 신축성 있는 요구조건임으로 수락하기에 이르렀으니 정 의원의 말씀이 지당하나 그 점 이해하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어제 일자로 서면화 되었으니 앞으로 중대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본다.

◇김 성 균 의원

- 그 당시 의장이 아니라 도지사라도 도장을 찍어주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의회의 결의가 없는 의장의 행위자체도 불법이니 이 문제는 이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자. (장내소란)

◆부의사항

※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 의사일정표를 배부한바 있으나 내 7일에 본회의를 계속할 것을 변경 결정 하도록 하고 감사반을 편성함이 여하한가

◇천 철 수 의원

- 감사반 편성은 지원제로 하자.

◇김 경 인 의장

- 지원제로 하면 곤란하니 추천하여 감사반을 구성할 것으로 선언하다.

- 감사반 편성 추천 결과

제 1반 : 김남진, 정응표, 김상대, 이정권, 천철수 의원

제 2반 : 김창희, 김일섭, 조양순, 강영락, 명남철 의원

제 3반 : 김삼성, 박두순, 김성균, 임석희, 김상태 의원

◇김 상 대 의원

- 회의록 통과시 마다 느끼는바나 특히 과정(過政)이고 하니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 배부하도록 예산이 허용한다면 속기사 1명을 채용할 것을 동의 하다. 제청이 있었다. 삼청 없음.

◇명 남 철 의원

- 7일 본회의에서 결정토록 하자.

◇강 영 락 의원

- 과도기에 있어 시 행정의 중요한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시장, 부 시장이 장기간 궐위 중이니 속히 임명하도록 찬동이 있으면 도지사 및 내무 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면 한다. 찬성 없음.

◇박 두 순 의원

- 수도문제를 가지고 좌담회를 누차 개최한 바 있으나 그 결말이 없으니 이 문제를 대집행부에 질의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 사청, 오청, 육청, 칠청이 있어 동의를 안건으로 성립하다.

◇박 두 순 의원 질의

- 누차 좌담회를 개최 급수사정이 곤란하여 제 3, 4 수원지에 가압 양수장을 설치하면 격일제가 없어지고 급수가 원활하다고 하였으나 변방동에 전연 혜택이 없다. 서산동이나 온금동도 마찬가지로 서남 수산회사 송수관에 연결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현금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그 이유여하.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가압 양수기를 설치한 결과 격일제는 해제되었으나 서산, 온금동 문제로 누차 서남 회사에 절충 중이나 현재까지 미결이다.

◇김 상 대 의원 참고 발언

- 온금, 서산동의 수도문제에 있어 본인이 아는데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가압 양수장을 설치해도 분기점에서 물을 뽑으니 서산동 방면에 급수불능이다. 서남회사에서 급수량 250톤을 300톤으로 인상하여 주변 서산동 반면의 송수관 연결을 응하여 줄 것 같이 말하였으나 현재는 장시간 송수관 사용으로 오는 고장 등 작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음으로 본인의 누차 권유가 효과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명 남 철 의원 질의

- 서산동 방면 인구가 13,500명이고, 세대수가 2,300세대인데 1,400세대 해당량 급수 뿐 이다. 계약당시에도 곤란한 점이 많았으나 일응유치 하고자 하였었다. 급수량 250톤에서 300톤으로 인상하고 계량기도 그 장내에 시설하여주고 운영공사로 오는 고장 등 시에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소유권까지 인정하여준다 하여도 회사가 불응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 같으니 계약갱신이 7월 말일 임으로 갱신시 의회의 의결을 거칠지 여부.

◇김 일 섭 의원 질의

- 명, 박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였다. 온금동이 968세대나 200세대 해당량 밖에 급수가 안된다.

- (1) 서남회사와 절충하여 불능인 경우 그 대책 여하
- (2) 서남회사가 불응인 경우 급수차 배치 여부
- (3) 송수관 신설가능성 유무

◇김 남 진 의원 질의

- 송수관 시설에 따른 예산 소요액 및 서남 송수관 사용으로 이용시간과 소모량?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명남철 의원 질의에 대하여 계약 경신 등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의결언어 시행하려한다. 김일섭 의원 질의에 대하여 급수차나 송수관 시설에 있어 예산의 계산도 없이 무책임한 답변이다. 숫자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김 상 태 의원

- 명남철, 박두순 의원 발언은 당연하다. 집행부의 사정도 곤란할 것이니 이 문제를 처결하기 위해 절충 위원을 구성할 것을 동의하다.

◇김 성 균 의원

- 15만 목포시민이 똑같이 행정의 균등을 받아야 할 쥘대 예산 파악도 없이 무조건 못한다 하니 건설과장은 무성의하다. 계약조건에 단수조건이 있어 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너무 이기적이다.
- 김상태 의원의 발언을 찬성한다.

◇정 응 표 의원

- 시의원의 위치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문제라고 보는데 급수시간을 연장하였다고 들었으나 통고 한 장 없다. 시의원에게 통고하여줌이 여하한가.

◇박 두 순 의원

- 백 번 말을 해봤자 한가지니 기술자 근성을 고쳐라. 직접 의회에서 절충

하도록 김상태 의원 동의에 찬성한다.

◇김 경 인 의장

- 김상태 의원 동의에 이의 없으므로 김일섭, 명남철, 박두순, 김상태, 김상태 의원등 5명을 지명하다.

◇명 남 철 의원

- 계약기간 만료 7월 말일에 계약 경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체결하게 하도록 집행부에 건의 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그 외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다.

◇박 찬 대 사회과장

- 박찬규 전 시장의 퇴임인사를 병환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박 사회과장이 대변하였다.

◇김 경 인 의장

- 김성균 의원과 천철수 의원이 형편에 의하여 감사반을 교체하였음을 선포하다.

◇김 경 인 의장

- 산회를 선언하다.

(하오 12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함.

단기 4293년 6월 2일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배문용

제 106회 제 2차 목포시 정기 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6월 7일 상오 10시 18분

2. 폐 의: 단기 4293년 6월 7일 하오 4시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경인

5. 출석인원 :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6명

6.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김귀석 외 각 과장
교육위원회 학무 과장

7. 의사 일정

◆보고사항

(1) 목포 해양 고등학교 학생 집단 이교 사건 보고

(2) 의원 관외출장 결과 보고 및 기타

◆부의사항

(1) 단기 4293년 제 3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예산안

(2) 목포시 중요 재산 무상 양여의 건

(3) 목포시 공익 전당포 운영자금 기채 승인 안

(4) 단기 4293년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5) 단기 4293년 목포시 수도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6) 단기 4293년 목포시 동정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7) 단기 4293년 목포시 도선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8) 단기 4293년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9) 단기 4293년 목포시 국민 주택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10) 단기 4293년 목포시 재건 주택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11)단기 4293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12)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13)의회 상임 위원장 보선의 건

8. 토의 사항

◆보고사항

◇총무과장 김 귀 석 보고

- 시내 해양 고등학교 학생 전원이 동교를 인천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지난 6월 1일 상인(인천으가서)함으로 인하여 당시 의회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하였다는 요지의 보고를 하다.

◇정 응 표 의원

- 관외출장 결과보고 해고생 대거 상인(上仁)사건으로 좌담회에서 대표단을 파견키로 되어 김삼성 의원과 본인이 서울과 인천지구에 출장하여 어제 귀 목 하였는바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1) 목포 해고생들의 태도 : 상인한 해고들이 3개소에 본산 수용되며 인천이전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투쟁은 물론이려니와 해고대표 4명이 문교부를 방문하여 인천으로 이전하여 주도록 진정하고 있었으며 인천시 공보계에 연락처를 두도록 요청하고 있다.

(2) 인천시 당국의 태도 : 인천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침구 등을 대여하며 이에 협조함은 물론이려니와 제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식도 접대하였다.

(3) 문교부의 태도 : 해고생 대표의 진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목포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응이면 해고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경거망동한 행위란 있을 수 없고 4.19학생 의거는 부정에 대한 정의이나 금반 해고생들의 행위는 부정투쟁이라고 보니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없으니 즉시 귀목해서 수업하라고 권유하였다.

(4) 본인 등의 활동상황 : 문교장관을 위시하여 고등기술과장 등을 방문하여

사후대책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목 하도록 간청하였으나 학생들은 불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 김삼성 의원 입장.

(상오 10시

30분)

◇김 삼 성 의원 관외출장 결과보충 보고

- 해고문제로 전체시민에게 여러가지로 미안하다. 해고생들의 구실은 시민이 협조가 않는다고 앞으로도 계속 인천에 잔류할 것으로 보나 하목하고 싶어도 재목학생들의 보복이 두렵고 여비가 없어서 곤란하겠기에 어제 해고학수형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3인을 선출함과 동시 학교장과 동도 상인하였다. 해고생들의 요구 중 해고의 학제의 2년 연장과 개선의 요구는 타협하다고 본다. 그 외 문교부장관이 언명하기를 상대는 광주로 이전기로 국장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하였으니 아울러 보고드린다.

◇김 경 인 의장 보고

- 거반에 목중, 목고 병합과 유중에 고등학교 증설을 요청하는 진정서에 각각 시 의장관인을 날인 동의하였음을 보고하다.

- 천철수 의원 입장

(상오 10시

40분)

- 김창희 의원 입장

(상오

11시)

◇김 삼 성 의원

- 정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해고생들이 귀목시 환영하여 주도록 각 중, 고교에 호소문을 발송하도록 정 의원의 동의집에 첨가수락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재청과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수도문제 협의 미결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하오 1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언하다. (상오 11시 5분)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1시 20분)

◆부의사항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제 1항 상정을 선언하다.

◇시정주무 박 상 규

- 제안 이유 설명하다.

본 건에 있어서는 연동 노인당 설립 도비 보조일뿐 그외 일반 회계 세입세출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다.

◇김 경 인 의장

-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경정 예산안 상정을 선언하다.

◇임 석 희 의원

- 본 건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었고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경정 예산안 원안 무수정 통과를 선언하다.

◇김 남 진 의원

- 부의안건 나머지 제 2항부터 제 13항까지 중 제 2항부터 제 11항까지 제안 이유설명은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일괄 상임 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제 2항부터 제 11항까지 상임 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제 12항 상정을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교육위원 보선에 앞서 사립학교장의 피선거권 해석을 요청한다.

◇김 경 인 의장

- 문교사회국장이 무안 교육군청에 통첩한 바에 의하면 사립학교장이나 교감은 복무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선임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5월 30일 문정과 전화로 조회한 바에 의하더라도 기(이미)문교 사회국장의 통첩에 의거한다고 하였으나 조양순 의원이 사사로 도에 들렀을 때에 문의하니 사립학교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히 교육 위원에 선임된다고 한 예도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연구자의 말에 의하더라도 사립 학교교장은 실질적인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니 입법정신에 입각해서 본의회의 효력이 유효하리라고 사료된다.

◇조 양 순 의원

- 본인이 사사로 도에 들렀을 때 참고로 문의하였다. 장학관의 말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리라고 하였으며 문교부에서도 동일해석이 있었다고 하였다. 문사국장의 시달은 사립학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제행위라고 보며 광주시에서도 사립교 교원이 교육 위원에 선임된 실례도 있고 하니 모 법에 따라 사립교원이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으리라고 말하였다.

◇김 상 대 의원

- 교육 위원보선에 앞서 생각하는 바를 말하련다. 거반에 교육 위원선출에 있어 갑론을박이 있어 의견이 백출하였으나 원로급에서 선출기로 하여 사심이 없이 하였다. 그 후, 시 중 여론은 각양각색이니 죄가 없이는 규탄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서 모가 말하기를 교육 위원선거에 금품을 거래하여 입장이 곤란하니까 영똥한 사람을 선출하였다고 정대연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들었을 때 기가 막혔다. 이사람도 결백하다. 그러니 금번에는 의사표시를 한 분을 선출도록 하자.

◇김 성 균 의원

- 김상대 의원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이 사람(도) 말하련다. 돈을 먹고 입장이 딱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엉뚱한 사람을 선출하였다. 민주당 의원이 돈을 먹는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 자유당 의원도 양심이 살아있다. 김경인 의장이 예상자를 목일(목포일보)에 공개하였는데 그 속에 들어 있을 뿐 아니라 간청까지 하였는데 정대연 선생이 당선을 수락치 않은 것이 오히려 의아스럽다. 특히 김경인 의장과 정 선생간은 동서간인데 그 분이 욕을 한다니 중대 문제다.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내부도 조사하고 정 선생이 그런 말을 하였으면 시의회 명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도록 하고 조사위원은 3인으로하나 김상대 의원을 넣어 2인은 의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하다.

◇김 경 인 의장

- 참고 발언하다. (내용 생략)

◇김 창 희 의원

- 참고 발언하다. (내용 생략)

◇김 경 인 의장

- 조사 위원회 구성에 이의 없으므로 김상대, 김상태, 명남철 의원을 지명하다.

◇이 정 권 의원

- 거반 교육 위원 선거에 있어 제 3자를 선출한 것은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하였으니 흑백을 가려놓고 교육 위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금일 선거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과 삼청, 사청이 있었다.

◇김 남 진 의원

- 이정권 의원의 말씀은 옳은 말이나, 정대연씨 한 사람의 말에 구애받을 수는 없으니 금일 교육위원 보선을 해놓고 나머지 사실을 규명토록 하자.

◇김 상 태 의원

- 이정권 의원 발언에 찬성하다.

◇명 남 철 의원

- 김상태 의원 발언과 동감이다.

◇강 영 락 의원

- 김남진 의원 발언에 찬성하다.

◇정 응 표 의원

- 조사단 구성에 구애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 선거는 연기하는 것이 좋을리라고 참고로 발언하다. (내용 생략)
- 이정권 의원 교육 위원선거 보류 동의를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다.

◇간사 김 귀 석 보고

- 인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해고생 건에 대해서 내전(來電)이 있으므로 보고하다. (내용 생략)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제 13항 상정을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

- 3.15선거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정의 운영이 있었다. 그 내용인 즉, 청소차 운영에 있어 매일 휘발유 5승씩 지급하고 부족분과 차 수선 등은 보안계 경찰관에게 운영을 일임하고 있다. 그 폐단인 즉, 경찰에서 압력을 가해서 경찰관에게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 끌려 다니고 있으니 차라리 운전수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상태를 앞으로 존속시킬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들어 대집행부에 질의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 사청, 오청, 육청, 칠청까지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다.

◇김 경 인 의장

- 급시안건으로 인천시 의장으로부터 즉래(즉시오라는 것)요청한 해고건 전보문제를 상정하다.

◇김 삼 성 의원

- 해고사건으로 여러가지 미안하다. 해고생 하목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1,500,000환이 필요하나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해고생들이 단식투쟁을 한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도 도착하였으니 집행부와 의회에서 출장토록 하자.

◇강 영 락 의원

- 김삼성 의원 발언에 찬성 발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김삼성 의원 발언에 찬성하다.

◇김 경 인 의장

- 해고사건 출장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의장과 강영락 의원 집행부에서 1인이 동도 출장할 것을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청소 운영에 있어 앞으로 운영 방법 여하.

◇김 성 균 의원

- 위생 사무가 조장 행정기관으로 이관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

◇사회과장 박 찬 대 답변

- 정응표 의원 질의에 대하여

청소 사무에 있어서는 타지방에서도 경찰이 장악하고 동소요 경비만 시에서 지출하고 있다. 3.15선거 전 청소차를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오물을 매각하여 운전수와 경찰관이 상의해서 소소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경찰서 위생 계장과 합의 처리하여왔다.

- 김성균 의원 질의에 대하여

위상사무가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환원케 된 데 국회에서 추경 예산 조처되는데는 시로 이관되리라고 보니 그 때 제반 결함을 시정함이 옳으리

라고 본다.

◇김 경 인 의장

- 그 외 질의 없음으로 종결할 것을 선언하다.

◇김 경 인 의장

- 문사 위원장에 4대 1로 조양순 의원
- 산업 위원장에 4대 1로 김창희 의원
- 내무 위원장에 4대 1로 이정권 의원이 각 각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다.

◇김 경 인 의장

- 산회를 선언하다.

(하오 4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 함.

단기 4293년 6월 8일

시의원 김창희

작성자 서기 배문봉

제 106회 제 3차 목포시 정기 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6월 28일 상오 10시 40분

2. 폐 의: 단기 4293년 6월 28일 하오 3시 15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경인

5. 출석인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이종수 외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외 서무, 학무 과장

7. 의사 일정

◆보고사항

- (1) 선어 수출 지정항 관계 전문의 건
- (2) 다도해 해수욕장 운영 협조의뢰의 건
- (3)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목포 청과 야채 중소상인 일동)
- (4) 정대연씨 교육위원선거 발언 관계 조사보고

◆부의사항

- (1) 제 14회 시정 감사 결과 보고
- (2) 이 시장 시정방침 개요 설명
- (3) 단기 4293년 제 4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8. 토의 사항

※선어 수출 지정항 관계 전문의 안

◇간사 김 귀 석

- 서울에서 목포 세관장 발신한 전문 낭독하다.

※다도해 해수욕장 운영 협조의뢰의 건

◇간사 김 귀 석

- 무안군 이로면 의회의장으로부터 온 의뢰문을 낭독하다.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목포 청과 야채 중소상인 일동 제안)

◇간사 김 귀 석

- 목포 청과 야채 중소 상인 조만식 외 17인으로부터 제출한 청원서를 낭독하다.

※정대연씨 교육 위원선거 발언 관계 조사보고

◇김 상 대 조사 위원

- 지난 본 의회의 결의에 의거 정대연씨가 교육 위원선거에 대하여 비난하였다는 발설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정대연씨가 지상을 통하여 그런 비난을 한 일이 없음을 해명하였기로 지상을 통하여 부인한 이상 본인을 만나더라도 지상보도와 같을것으로 생각하니 지상해명을 인정키로 하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김 경 인 의장 보충 보고

- 조사위원은 아니나 인척관계도 있을 뿐 아니라 정대연씨를 만나 사실 여부를 알아 보았기에 말씀 드립니다. 광주 교육위원선거를 하는데 있어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한 말이 잘못 전하여진 것으로 아나 목포 교육 위원선거에 금품거래 운운의 비난의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해명하였다.

◇김 남 진 의원

- 중앙 도매시장 관계 청원에 있어 불합리한 운영을 할 뿐 아니라 이기술 외 수백인으로부터 100여만환을 강취하였다는 진정인바 이를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 위원 3인을 선정하여 조사할 것을 동의한다.

◇정 응 표 의원

- 김남진 의원 동의에 찬성이나 의사 진행상 모순이다.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고자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 후, 과거 시장 임명이 지연되어 시민 없는 시정을 하였으며 수일 전에 시장이 부임하여 처음으로 본회의가 개최 되었으니 시장으로써 의결부에 포부를 말해서 협조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어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예가 아닌가 한다. 그럼으로 부의사항 제 1항과 제 2항을 바꾸어 먼저 시정방침을 듣고 그 외는 순서로 하도록 하는 의사 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장

-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선언하다.

◇이 종 수 시장

- 시정방침 개요를 설명하다. (내용 생략. 병채과 여합)

◇김 경 인 의장

- 청원서 상정을 선언하다.

◇김 상 태 의원

- 소개 발언하다. (내용 생략)

◇김 창 희 의원

- 소개 발언하다. (내용 생략)

◇정 응 표 의원

- 본인도 도매시장의 모순된 행위를 목격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며 그런 말도 들었다. 이런 불합리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 집행부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감독기관으로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

변을 들을 것을 동의하다. 재청에 이어 칠청 까지 있었다. 동의가 성립되다.

◇김 창 희 의원

- 본 건 해당분과 의원회로 하여금 조사 처리할 것을 개의회하다.

◇조 양 순 의원

- 진정서에 불법적으로 강취 하였다는 100만환은 통과 수수료일 것이며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니 차라리 통과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본다.

◇김 경 인 의장

- 조사 위원구성에 이의 없으므로 산업 위원회 중심으로 김남진, 김창희, 김상태 의원과 조양순, 정응표 의원 등 5인을 지명함과 아울러 금 월 30일까지 조사토록 할 것을 선언하다.

◇이 종 수 시장

- 금시초문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의법 답변하고자 한다.

※다도해 해수욕장 운영 협조 의뢰의 건

◇김 경 인 의장

- 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김 남 진 의원

- 재정이 앞서는 문제니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다.

◇김 창 희 의원

- 김남진 의원 동의에 찬성하면서 이어 재청한다. 삼청이 들어왔다.

◇정 응 표 의원

- 당 시에 해수욕장하나 없다는 것은 모욕이다. 시일관계도 있으니 집행부

에서는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개의한다. 재청, 삼청이 들어오다.
개의 성립하다.

◇김 경 인 의장

- 이르면 의회의장이 나오셔서 발언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자 한다.

◇이로면 의회 의장

- 목표와 이로면은 큰집과 작은집과 같은 격이니 상호 협조할 것을 바라와
해수욕장 운영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요지의 부탁이 있었다.
- 표결결과 : 김남진 의원 동의는 재석 12명 중 찬성 6표로 (부결)폐기.
정응표 의원의 개의는 재석 15명 중 찬성 8표로 가결되다.
(표결은 개의부터 처리하여야 한다.)

◇김 경 인 의장

-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는 정응표 의원의 개이가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하오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다. (상오 10시 45분 현재)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2시 7분)

◇김 창 희 의원

- 부의 사항 제 1항과 제 2항은 명일로 미루고 제 3항의 추경 예산을 금일
처리하도록 하는 의사 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어 동
의 성립되다.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단기 4293년도 제 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상정을 선언하다.

◇시정계장 박 상 규

-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김 경 인 의장

- 분과 위원회를 개최키 위해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언하다. (하오 2시 23분)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3시 10분 현재. 재석 9명)
- 명남철 의원 퇴장으로 재석 8명

◇김 경 인 의장

- 성원 미달임으로 산회를 선언하다. (하오 3시 15분 현재)

우(위)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 함

단기 4293년 7월 1일

시의원 김상태

시의원 김창희

작성자 서기 배문봉

제 106회 제 4차 목포시 정기 의회 회의록

※중간 페이지 탈락 함.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낙(노르웨이) 협회 대표

- 한, 낙 협회 해외 사회 후생관 레기보 설명.
각 서 내용일부를 변경하게 된 경위의 설명이 있었음.
(내용생략 별첨과 같음)

◇이 종 수 시장

- 금반 각서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은 경제적 조건이며 「메디컬 센타」 계약과 흡사하는데 시에 없는 기관이니 받아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한다.

※내무 위원회 종합 심의보고

◇김 일 섭 의원

- 부의안건 제 5항 교육 위원보선의 건을 제 1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항을 순차 낮추는 의사 일정 변경할 것을 동의함. 재청, 삼청이 있으므로 동의 성립되다.

◇정 응 표 의원

- 김일섭 의원 동의는 납득이 가나 금일 교육위원 보선을 몰랐을 뿐 아니라 결석의원도 있으니 결석 의원에게 통지하기 위해서나 또는 문과 위원회 심의도 미결이니 정회하였으면 한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일섭 의원 동의 표결결과 : 재석 11명 중 찬성 2표로 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정회하는데 이의 없음으로 분과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다.
(상오 11시 42분 현재)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2시 3분 현재

◇정 응 표 의원

- 내무 위원회 종합 심의 보고.

단기 4293년 제 4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있어 산업 위원회에서 (관)농업비, (항)모범농촌설치비, (목)시설비의 농로 개설비 400,000환 증액을 삭감하여 내무 위원회로 회부 되었기로 산업 위원회안 대로 채택통과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 보조비로써 200,000환은 보조지시가 있으나 200,000환은 아직 없음으로 잔액 200,000환의 보조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이다.

◇명 남 철 의원

- 농로 개설비 400,000환 중 200,000환은 보조지시가 있는데 전액 삭감 이유 여하.

◇김 경 인 의장

- 도에서 도의원 1인당 200,000환씩을 비공식으로 책정하여 그 분들로 하여금 구역을 정하도록 하여 용당과 죽교 3구동을 정하여 용당동 분은 지시가 있으나 죽교 3구동분은 미착으로 200,000환은 계상하고 다음에 200,000환을 계상 한다는 것은 성질상 곤란하여 잔액 200,000환의 보조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부의안건 제 1항을 내무 위원회의 안대로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이 있었다.

◇명 남 철 의원

- 8월 7일까지의 임기 내에 선거 등이 있어 그 기간 내에 소집이 곤란하리라고 보는데 공사는 완료했으나 예산 미비로 공사비를 지출치 않으면 민심 수습 상이라도 않되니 200,000환은 계상 해야한다.

◇김 일 섭 의원

- 용당동에 농로를 개설한 경위를 해명하기 바란다.

◇농림계장 박 흥 태

- 용당동 농로에 있어서는 도에서 직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제 1항 일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
- 김성균 의원 동의에 삼청이 있어 동의를 성립되어 표결에 부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 14회 시청 감사 결과보고

◇정 응 표 의원 보고 (제 1반 대표)

- (1) 4.19 이후 근로상태가 안정성과 침저성(침착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중 무단 이탈과 중식시간을 지키지 않으니 집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 (2) 조의금 지출에 있어 3,000환부터 20,000환까지 고저가 사람에 따르고 있으니 앞으로 공정을 기하기 바란다.
- (3) 판공비 사용도 동일접대비 명목이 있으니 시정하기 바란다.
- (4) 노무원 5명 결원의 보충은 시급하고 임시직원 초과된 62명을 해임함으로써 결원이 생긴 곳의 보충을 앓는 것은 전후모순이 아닌가 한다. 노무원 임명에 있어 30세 이하와 국졸이 있으니 원칙모순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 드린다.
- (5) 제반 공사 입찰에 있어 경쟁 입찰에 부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있으니 이유는 있겠으나 앞으로 공개 입찰 시행하기 바란다.
- (6) 각종 물품 구입에 있어서도 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을 택하라.
- (7) 대지와 대가의 사용료 징수가 대단 불량하다. 시유재산관리를 명백히 하라.
- (8) 영구차를 수년에 공하여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금까지 시행치 않은 것은 집행부가 무성의 할 뿐 아니라 공약을 이행치 않아 걱정되므로 재촉구한다.

- (9) 어제도 해수욕장도 나오고 공설운동장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이의 기초 공사라도 한다고 공약하였으나 아직 계약조차 없으니 유감천만이다.
- (10)공동 하양장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으니 조례의 개정이 있기를 바란다.
- (11)공동묘지 사용료 수입이 미진 된 이유
- (12)도장 사용료 수입이 미진이 있으니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 (13)호적 기류 등 초본 발행 수수료 수입과 등용지 인쇄수량과 차가 심하니 용지의 절약을 기하라.
- (14)도선장의 신규주임과 사무인계에 있어 명확치 않으니 집행부에서 조사하라.
- (15)선원간의 보수가 불합리하니 공정하게 합리화하라.
- (16)현재 우기인데 예산에 계상된 공사 중에서 우기에 해당되는 공사는 다른 곳보다 앞서 조속 시공하기 바란다.
- (17)죽교동의 대하수구의 뚜껑 공사에 있어 순석상(순서상) 대로변을 먼저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죽교 3구에 먼저 공사를 한 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 전시장이 밝힌바 있으나 죽교 2구동의 이의 공사도 예산 조치를 하여 2월 17일자로 설계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없어 착공을 않는다. 조속 승인을 얻어 시공할 것을 촉구한다.
- (18)금년도 예산 통과시 노자(노사)쟁의 조정비를 인상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대책이 없으니 신임시장께서 조치하여 주심이 여하.

◇김 성 균 의원 보충보고

- (1) 근무성적이나 나쁘니 철저한 감독이 있길 바란다.
- (2) 경조금 지출에 있어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라.
- (3) 공사감독이 소홀하니 건설과에서 감독의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 (4) 동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무가 개선되어 양호하나 당직과 근무 상태가 불량이니 감독 철저히 하라.
- (5) 적십자 회비가 산정 2구동 제외 전동이 입채 되었으니 이의 대책이 있길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보충보고

- (1) 상수도 확장공사 계약에 있어 제14조에 있어 수압시험은 통수에서 제외 하도록 단서를 삽입도록 할 것과, 제 15조의 하자담보금 지불기간 1년은 모

순이라고 보니 3년으로 하도록 각 각 계약을 변경함이 여하한지 답변할 것을 요망한다.

(2) 나주 정수장 공사가 부진 된 것은 시에서 공급하기로 된 「씨멘트」공급이 원활치 않은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여하.

(3) 도선장 일계표 정리에 있어 운영 회수별로 정리해서 명백을 기하라.

◇조 양 순 의원 보고 (제 2반 대표)

(1) 산업과의 사료행정에 있어 도 지시에만 의존하여 시 실정에 맞지 않으니 창의성을 발휘하여 시 실정에 맞도록 혁신이 있기를 바란다.

(2)사회과의 영구차 구입에 있어 3년을 경과한 금일에 미결이니 2대 시의회 임기 전에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연부 상환금 징수에 있어 성의 부족이라고 보니 앞으로 철저한 징수를 기하라.

(3) 재무과에서는 예년에 비추워 징수가 부진이니 앞으로 세수입 확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

(4) 동에 있어서는 적십자 회비 입체가 상당액에 달하니 이를 일소하도록 부탁한다.

◇김 창 희 의원 보충보고

(1) 산업과에서 남교동 시장과 제2호시장의 상품배열에 있어 고급 포목점이 시가지로 나오도록 하고 제2호시장 생선도 바깥쪽으로 순서적으로 배열함은 물론이려니와 사용료 수입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

(2) 도살장 사용수입에 노력함은 물론이려니와 간이 도살장 설치확보를 촉구한다. 중앙 도매시장 사용료가 180만원 계상 중 193,383환의 수입은 이해가 안가니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3) 가축시장 사용료 감 423,000은 너무 심하니 수입확보에 노력하라.

(4) 향동시장은 보증금을 환불하여 공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나 앞으로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명 남 철 의원 보충보고

(1) 남교동 시장의 표탈료 수입이 420,000환이나 이를 폐지해서 영세시민에게 도움을 주도록 부탁 드린다.

◇박 두 순 의원 보고 (제 3반 대표)

-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여지나 다음 사항의 미비 된 점을 급속 시정하기 바란다.

(1)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적자가 없는 운영을 바란다. 시장이 성병진료소 소장으로 되어있으며 매월 성병 검진을 받게 되는 것이나 2월 17일 이 후, 검진자가 없으니 사회과에서는 대상자를 동원해서 시민 보건상 절대 필요하니 철저한 검진을 실시하라.

(2) 4월 22일자로 감기 예방약 300명분이 지급되어 사회과에서 대상자의 동원을 앓은 탓으로 6월 13일 부로 실효 되었으니 그 이유여하.

(3) 병원에서 외상처방이 723,000환인데 그 중 시 직원이 260,000환이나 되어 시장이 막심하니 해당자는 조속 청산(정산)하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장

- 법정시간이 되었으니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 것을 선언하다.

(4) 약품구입에 있어 입찰하여 구입하였으나 예정가격보다 고가이니 수시 구입함이 좋으리라고 본다.

(5) 위생사무관리가 시급을 요하니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라.

(6) 공익전당포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환을 증자해서 영세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라.

(7) 직업 소개소는 별다른 것이 없음.

(8) 도서관에서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책만도 않되니, 앞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면목을 갖추기 바란다.

(9) 동에 있어서는 김성균 의원 보고와 같다.

(10)교육청과 학교의 장부가 부합치 않으니 서무 서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중앙교는 엉망이라. 서부교는 식목이 잘 가꾸웠으며, 간호실을 두어 환자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임 석 희 의원 보충 보고

(1) 교육세 세입은 등한하고 세출은 100% 집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세수입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

(2) 동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정 응 표 의원 동의

- 시정감사 결과보고가 누락되었음은 명일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하고 이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산회를 선언하다.

(하오 4시 2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 함

단기 4293년 7월 1일

시의원 김창희

시의원 김상태

작성자 지방서기 배문봉

제 106회 제 5차 목포시 정기 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6월 29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단기 4293년 6월 29일 하오 4시 3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경인

5. 출석인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이종수 외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외 각 과장

7. 의사 일정

◆ 보고사항

※ 중앙 도매시장 관계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보고

◆ 부의사항

※ 시정 감사 결과 처리 전말보고

8. 토의 사항

◇ 김 경 인 의장

- 개회를 선언하다.

※ 중앙 도매시장 관계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보고

◇김 창 희 의원 보고

- 중앙 도매시장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중, 소상공인들이 청원한데 대하여 조사 중간 보고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중, 소상공인들 자기자본으로써 매입하는데 통과 수수료 7분을 징수하니 이를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도매시장 측에서는 도매 시장법에 7분을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상인과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중,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 3분을 징수하였으며 법에는 상품도 도매시장을 거치도록 된 것도 적당히 출하하겠다는 주장이나 이런 분규는 당시 뿐 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분규가 있으니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업자와 시장측간에 시장에게 건의하고자 한다.

◇정 응 표 의원 보충 보고

- 금조(금일 아침)조사하여 정오(까지) 계속코져하나 조사의문이니 조사단에 게 일 임해서 조사단의 결의를 본 의회의 결의로써 건의 처리케 위임하여 줄 것을 동 의 요청한다.

◇명 남 철 의원

- 대단히 좋은 말씀이나 명일까지 조사불능이면 좌담회에서 결정토록 하자.

◇김 경 인 의장

- 본 건 좌담회에서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좌담회에서 처리할 것을 선언하다.

※시청감사 결과 처리 전말보고

◇김 경 인 의장

- 부의사항 제 1항 상정을 선언하다.

◇총무과장 김 귀 석 답변

- 정응표 의원이 말씀하신

(1) 직원 근무태세에 대하여는 4.19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 근무태세

확립에 노력하고자 하며

(2) 경조금 지출에 있어서는 기준을 세워 지출하고자 하며

(3) 판공비 지출에 있어서도 앞으로 각별 주의하고자 하며

(4) 노무원 5명의 결원보충에 있어서는 30세 이상자로서 5년 이상 근속한자와 대학학부 졸업자를 임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임명하였으며 그 중 30세 미만자 1명은 상대상과 졸업자입니다.

(5) 공사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재정법에 의거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지양해서 공개입찰에 부하고자 하며

(6) 물품 구입에 있어서도 예산 형편상 과계(課係)의 청구에 의하기 때문에 수시 구입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변경해서 경쟁입찰에 의해 구입하고자 하며

(7) 임대료 징수가 납기 내 20% 징수이나 앞으로 이의 완정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며

(8) 영구차 미구입에 있어서도 제반 형편에 의해 지연되었으나 5월 9일에는 만반이 준비를 하여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업자의 불응으로 부득이 실현치 못하였으니 재 절충하고자 하며 신조하려면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9) 공설운동장 신설에 있어서는 승소 토지를 매각해서 할 계획이오니 승소 토지가 처분되는 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 동직원 근무 태세에 있어서도 시 와 동일하게 단속하고자 하며

(11) 적십자 회비 각동 입체에 대하여는 상부의 지시에 의거 납기 내 납부하도록 강력 촉구는 하였으나 동에서 입체하도록 명한 일은 없으나 여기에 표창금이 있어 동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분청 직원이 협력해서 이의 일소에 노력하고자 한다.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정응표 의원의 말씀에 대하여

(1) 공동하양장 조례는 실정에 부합토록 다음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며 (2) 도선장의 자동차 인수장 불비 된 곳을 수선하겠으며

(3) 우기 전에 실시할 우기에 수반한 공사에 있어서는 대성동은 어제 입찰하고 죽교 4구동도 곧 입찰하겠으나 연동과 시내는 아직 예정이 없으나 가 급적 시재(市財)가 확보되는 데로 시급히 착수하고자 합니다.

- 김상대 의원 말씀에 대하여

나주 정수장 공사 관급 「씨멘트」에 있어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구입을

못하고 내무부에 의뢰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임으로 지연되는 것이니 양찰하 시기 바라며 내무부에 「씨멘트」 500톤을 입채하고자 직원이 상경 절충 중에 있습니다.

- 김성균 의원 말씀에 대하여

물품 검수와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찬 대 답변

(1) 국민 주택 상환금 회수에 있어서는 노력은 하나 여의치 않으니 앞으로 전력을 다하고자 하며

(2) 도서관 도서에 있어서는 지난 4월 27일자로 총무과로 구입 요구중에 있으며 (3) 성병 검사에 있어서는 3.15 선거와 4.19 혁명 등 혼란으로 지연 되었으나 앞으로 시급 착수하고자 하며

(4) 감기 약사용에 있어서는 병원에 일임하여 5월 2일자 동으로 지시하였으나 희망자가 없는 까닭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5) 시립병원 수입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의 하겠사오며

(6) 위생 사무소 수선에 있어서는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형편에 의해 미계상이나 다음에 예산 조치되는 데로 수선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박 병 열 답변

- 체세징수가 거년에 비하여 저하되었으나 7월 말일까지 예정을 세워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을 대리해서 상공계장 조 현 주 답변

(1) 가축시장 사용료 수입감(소)은 제주도에서 우(소)수출 제한으로 434,900환의 수입감이 있으나 금년은 주의하겠으며

(2) 사료배급에 있어서는 생산량 부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오니 양찰 하시기 바라며

(3) 도살장 사용료 확보에 있어서는 앞으로 간이 도살장을 설치하여 노력하겠으며

(4) 남교동 시장 상품배열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보며 2호시장 상품배치는 시급히 시정하겠으며

(5) 시장 사용료 수입감은 상품매매 부진으로 폐점 점포가 있어 부득이 된

것임으로 개점시는 밀린 사용료를 징수하려하며 앞으로 노력하고자 하며

(6) 중앙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감에 있어서는 대행기관이 미약하여 8월에 대행기관을 교체하여 강화되었으니 앞으로 수입이 증가되리라 보며

(7) 남교동 시장 포탈료는 도로면은 폐지하였으며 2호시장의 공지와 처마 밑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 종 수 답변

- 정응표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죽교 2구동 하수구 뚜껑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도에 독촉을 하여 승인을 받는대로 시공하고자 하오며

(2) 노자(사)쟁의비는 다음 의회에 반드시 추경조치를 하겠으며

(3) 도선장 선원 처우에 있어서는 동율로 지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김상대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도선장 일계표는 회수별로 변경 실시하겠으며

(2) 상수도 확장공사 계약 제 14조의 수압시험은 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 삽입은 시가 유리하므로 이의 경신에 노력하겠으며, 제 15조 하자보증금 지불을 3년으로 연장케 하는데는 동감이나 예규 통첩에 의한 것이니 만큼 이를 상부에 말씀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3) 노무원 5명 결원 보충에 있어서는 과장회의에서 기준을 정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근무자와 대학학부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8명을 선발하여 가족이 적은 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월급을 더 받게 하기 위해 사기양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련다.

◇정 응 표 의원 질의

(1) 노무원 5명 보충에 있어서는 시급성을 띠고 그와 반대로 임시직원 62명 해면에 따른 결원을 보충치 않은 이유 여하와

(2) 시내 하수구 준설작업은 언제 할 것인지?

◇김 상 대 의원 질의

(1) 상수도 공사 계약문제에 있어 제 14조 수압시험을 하는 것도 통수라고 보아지니 이렇게되면 곤란하니 단서를 삽입해서 수압시험은 통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과 제 15조의 하자보증금 1년 이상은 불가하다 볼 때 하자 보

증금 지불시 25/1,000를 갑에게 보관하도록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영구차 구입을 못한 것은 지금까지 업자에게 속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니 목포에서 구입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된다.

(3) 적십자 회비를 봉급에서 공제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명 남 철 의원 질의

(1) 사료 배급에 있어 도, 시 지정 종축장이란 미명하에 간판만 가지고 수배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니 합리적인 배급을 할 것과

(2) 남교동시장 조례 제 22조 포탈료를 과료로써 징수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를 징수함으로 허가로 될 것임으로 이를 징수치 않고 2호시장의 공지사용료만 징수한다고 하였으니 그 뜻을 공고하기 바라며

(3) 도로 사용료가 8건만 된다는 것은 의문이며 청소해서 징계(진개) 집합장소를 표시하기 바란다.

(4) 도선장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있으니 그 수당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며

(5) 도살장 부근에 분뇨통이 있어 불결하니 이를 이전하기 바라며

(6) 경찰서에서부터 시청으로 통하는 도로를 수선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며

(7) 자동차적재선 「산바시도 수선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8) 향동시장 앞 도로 등도 착공 않은 공사가 많은데

(9) 거반에 상인 데모대 요구를 수락한데 대하여 제반 세금이 50%감을 가져오더라도 지장 없이 집행이 될 것이 그의 해명을 바란다.

◇김 상 태 의원 질의

- 총무과장에게

(1) 직원 근무상태 4.19로 말미암아 문란하고 4.19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단속한다고 하였는데 그 해석여하

(2) 영구차를 우금 구입치 않았는데 그 이유를 확실히 해명하기 바라며

(3) 공설운동장을 2월 말일까지 시공하겠다고 정책을 하여놓고 지금에 와서 승소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앞된다고 하니 그 외 방법은 없으신지

(4) 노무원 5명 임명에 있어 반드시 적격자를 임명하였는지 여부

- 건설과장에게

공사 현장감독을 20일간이나 감독치 못한 이유

- 사회과장에게

위생 사무소 파괴된 현장을 목견(目見) 하셨는지 여부와 수선을 앓는 이유

- 명남철 의원 데모 발언에 대하여

상인 데모 당시 본인과 각 과장이 입회하였으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신축성 있는 요구인 까닭에 수락하게되었다는 경위 설명하였으며 개인 김경인 또는 김귀석씨를 나무랄 것이 아니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질의

(1) 근무정신 이완 답변에 성의 없으니 실례를 지적치 않았으나 전 과장이 책임을 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 바라며

(2) 국민주택 상환금이 4년 지난 금일에 이르기까지 납부치 앓은 분은 참으로 악질이니 뽀뽀기를 쓰는 방법이 여하함이며

(3) 서무계에서 공무원 교양용 도서를 이용치 앓으니 이를 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일반시민이 이용토록 할 것과 상무회를 이관해서 도서관의 면목을 갖추도록 하라.

◇박 두 순 의원 질의

(1) 가축시장 사용료가 결함 된 이유가 발전소터와 부근창고에 4, 5 일씩 채우고 가축시장으로 가지 앓은 것으로 보니 온금동 부근에 가축시장을 설치함이 어떠한지

(2) 관재계에서 임대료 징수 성적이 불량하니 차라리 폐지함이 가하다고 보는데 폐지용의가 있으신지 여부

(3) 적십자 회비 90년도 에 일등 한 동에 상금을 지불치 앓았으니 조사처리할 것을 요망한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1) 죽교 2구 하수구 뚜껑공사에 있어 설계승인이 되는대로 시공한다고 하나 시재가 현금 400여만원 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재가 확보되지 앓더라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노무원 채용에 있어 고용원 규정이 앞서는지 시 규칙이 앞서는지의 여부와 노무원 대우를 할 사람에게 그 대우하지 앓은 점과 도선장 선원도 노

무원 대우를 적용하면 자연 해결될 것이 아닌가

(3) 적십자 회비가 말썽이 된 이유

(4) 영구차도 100만환 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240만환 까지 올라간 이유와 구입하려면 하필 그 차만 고집하는지 또는 신조할려고 해 보았는지

(5)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려는지 여부

◇조 양 순 의원 질의

(1) 공개입찰하여야 할 것을 수의 계약을 한 이유

(2) 영구차 구입은 않고 그 운전수를 채용한 이유

(3) 공동묘지 외에 사설공동묘지가 있으니 그 이유

(4) 가축사료 배급에 있어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5) 각 시장영업시간을 업자본위로 개정하기 바란다.

◇김 일 섭 의원 질의

(1) 도선장 수입을 증가키 위해 운행시간을 연장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연장 가능한지의 여부

(2) 죽교시장은 수지가 맞지 않으니 차를 매각함이 가하다고 보는데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동 직원에게 봉급을 지불치 않는 이유와 그 대책 여하

◇김 남 진 의원

- 이 시장께서 재임 중 선물을 하나 남겨주길 바라는데 그를 시행 할 수 있는지 확답요망

◇김 경 인 의장

- 중식을 하기 위해 정회 할 것을 선언하다. (하오 1시 현재)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2시 3분 현재)

◇김 성 균 의원 질의

- 5·30 상공업자 데모 요구 수락한 행위에 대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실천

여부에 대하여 말이 없을 뿐 아니라 재무과장 말에 의하면 제세수입이 지시하며 상공업자들은 공적으로 수락하였으니 실천될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의장직책이 중차대 하니 이에 대한 가부간 해결이 있어야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

◇김 창 희 의원 질의

(1) 이 시장의 시정방침을 잘 들었으나 시정의 뒷받침에는 시재확보가 있어야만 한 시정을 바랄 수 있을 쥘데 거반 상공업자의 데모로 말미암아 제세수입이 우려되니 이 문제를 시장으로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일반대중 앞에서 공약한 것이니 실천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시를 해서 시 재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2) 영구차구입치 않음으로 영세시민이 대단곤란을 받고있으니 이의 타개책으로써 호별세 5등이하자가 사망시에는 「추력」으로 운상(運喪)할 수 있도록 경찰 당국에 요청해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요망한다.

◇조 양 순 의원

- 데모 각서문제에 있어 죄담회시 7, 8인 모였는데 여러의원들이 의장 혼자 남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결론이 있어 수락날인은 김귀석씨 이고 의장은 입회 뿐이나 이분다(두사람)불가피한 사정일뿐아니라 제세 감세에는 시장의 자유재량이 허용이 되지 않은 문제는 이 문제니 이 정도로 끝을것을 의견으로써 말씀드린다.

- 김상태 부의장과 사회 교체하다. (하오 2시 45분 현재)

◇김 경 인 의장 (하단해서)

- 데모로 인한 각 서 관계 해명. 명남철, 김성균, 김창희 의원의 건설적 면의 말씀에 대하여 그 날 취한 일과 금일 여러분 발언과 차질이 있지 않은가 한다. 세금 징수 부진을 거기에 결부시키니 서글프다. 그 날 실정에 대하여 김상태, 조양순 의원의 말이 있었으나 죄담회가 소집되어 그때 7, 8명이 집합한 자리에서 집행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인 데모가 있다는 말에 파괴나 난동이 있으면 곤란하니 의장이 단독으로 하라고 해서 그 당시의 공기나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않을 수 없어 시장실에서 각 과장들과 같이 대기한 가

운데 현관에서 데모대를 맞이하였더니 호별세 50%감세를 위시하여 기타세 감액과 불필요 직제폐지를 요구하기에 당시 예산이 3억이나 그 중 시민 부담은 8천만원 이니 감세를 하게되면 시청문을 단계 될 뿐 아니라 정부도 무정부 상태로 국가 행정은 마비가 되며 법인 동정세를 폐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세율이 인상된다고 설명을 하였더니 전폭적으로 가하고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축성 있는 요구이니 다음에 회의를 가져 타합을 하고저 한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수락을 요청하기에 이르러 만부득이 군상(郡商)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타합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이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이 수락하고 본인은 입회자로서 날인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의장이름을 도용해서 날인하였으니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것이나, 의결부가 집행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간감부가 발령되어 체계를 갖추는 데로 재검토가 있으리라고 본다.

◇정 응 표 의원

- 5·30후 다방에서 김귀석 과장으로부터 각서를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거기에 추기도 있었는데 추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으며 차후, 상인 측과 타합해서 결정한다고 하나, 일반 상인들은 시에서 공적으로 날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조건이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김 상 태 의원

- 각서 날인 경위를 설명하다. (내용 생략)

◇김 성 균 의원

- 지금까지 답변이 경위 뿐 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 사람은 문짝 몇 개 파괴를 당하더라도 각서를 교부치 않았어야 했을 것이며 각서를 교부한 이상 실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김 경 인 의장 (하단하다)

- 원문이 살아있다. 입회이지 시장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을 분 아니라 의장 직을 월권한 것이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5·30 데모에 대한 각서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결론은 사후 처리문제이니 시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실천 방법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바란다.

◇시장 이 종 수 답변

- 15만 시장의 앞날을 위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송구스럽다. 부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신문으로 보고 심적으로 염려하였다. 10여일 전 상공회원 일동이 오세일씨를 통하여 마침 의장과 총무과장이 계신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기에 요구조건 중 불필요한 직제 폐지문제에 대하여 거반에 62명 해면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설시장직제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향을 따르겠다고 하였으며 호별세, 법인 영업세 및 영업세, 부가세 등은 일개 시장이 좌우할 문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처하겠다고 하였더니 오세일씨가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말씀 드리거니와 전남 4개시 중 도시 형태의 시중에서 목포가 제일 지방세 부담이 적다. 노동쟁의에도 냉각기간이 필요하며 앞으로 원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며 영업세, 부가세도 명일까지는 70% 수입이 낙관시 되며 금년도 예산확보에 큰 지장이 없으리 라고 본다.

◇김 성 균 의원

- 이 사람도 시원하다. 일반 상공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실천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명일이라도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해명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 이 종 수

- 그에 대하여 호소문을 입안 중이니 빠른 시일 내 시민에게 해명하고자 한다.

◇김 성 균 의원

- 의장은 책임이 없다고 하나 공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장

- 좋은 말이나 공적인 책임은 없으니 이해하시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의장이 책임이 없다고 하나 분명히 의장 자격으로써 하였으니 책임이 있다.

◇정 응 표 의원

- 문제의 핵심이 해결되었으니 호소문에 의장도 연서하여 주길 부탁한다.

◇김 경 인 의장

- 시장과 상의해서 원활히 처리하련다. 법정시간이 되었으나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데 이의 없음으로 연장할 것을 선언한다.

◇조 양 순 의원

-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산회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에 이어 육청 까지 있었다. 표결에 부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8표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산회를 선언하다.

(하오 4시 3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 함

단기 4293년 7월 1일

시의원 김창희

시의원 김상태

작성자 서기 배문봉

제 106회 제 6차 목포시 정기 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6월 30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단기 4293년 6월 30일 하오 6시 10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경인

5. 출석인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이종수 외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외 서무, 학무 과장

7. 의사 일정

◆보고사항

내무 위원회 종합 심의보고

◆부의사항

(1) 대집행부 질의 응답

(2) 목포시 중요 재산 무상 양여의 건

(3) 목포시 공익전당포 운영자금 기채 승인 안

(4) 단기 4293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5) 단기 4293년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6) 단기 4293년 목포시 동정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7) 단기 4293년 목포시 도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8) 단기 4293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9) 단기 4293년 목포시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10) 단기 4293년 목포시 재건축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11) 단기 4293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12) 목포시 교육위원회의원 보선의 건

8. 토의 사항

◇김 경 인 의장

- 개회를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의장으로써 법정 개회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개회할 수 없었으니 그 책임을 져야한다.

◇김 경 인 의장

- 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김 성 균 의원

- 정응표 의원 발언에 찬성 발언하다.

◇박 두 순 의원

- 상동

◇김 창 희 의원

- 상동

◇조 양 순 의원

- 같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써 의장의 잘못을 사과한다.

◇김 상 대 의원

- 시간에 성원이 되었으나 정, 부의장이 출석치 않아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한 의사 진행하고자 본인은 퇴장하였다. 그러나 의장이 사

과를 하니 화기에애한 가운데 의사를 진행하였으면 한다.

◇정 응 표 의원

- 금일로써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일 뿐 아니라 안건 처리가 산적된 이 마당에 정, 부의장이 출석치 않아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함은 중대문제 나 앞으로 자각해서 2대 의회의 좋은 선물을 남길 것을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이 사람도 흥분하였다. 의장이 사과하니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을 바란다.

◇김 경 인 의장

- 신병관계로 늦어진 것을 재3 사과 드리는 바이며 책임을 느껴 사회를 교체하고자 하니 충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김경인 의장 퇴장. (상오 11시 10분)으로 김상대 의원과 사회 교체되다.

◇김 창 희 의원

- 본인도 마찬가지로 유감스러운 바이나 사과를 하였으니 11시 30분까지 정 회할 것을 동의하다.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 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위원 사회

- 11시 3분까지 정회를 선언하다. (상오 11시 15분)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상오 11시 35분 현재)

◇박 두 순 의원

- 어제 감사보고 답변에 있어 석연치 못한 답변이 있으니 그를 말씀 드리면
(1) 성병 진료소장 문제라 시립병원의 외상 처방 처리 문제
(2) 껌보선창 도비보조령과 그 수선 대책 여 하며, 어제 말씀 드린 서부교 양 교장이 부임 이 후, 다른 학교보다 제반형편이 곤란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며 우수한 학교로 만들었으니 그 공을 치하하는 뜻으로 양 서부교장을 표창할 것을 긴급 동의한다.

◇정 응 표 의원

- 서부교장 표창에 있어 반대는 없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가령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물 하나 없이 곤경에 빠져있는 곳에 물당구를 크게 만들었다는 업적, 소채 등을 매각한 대가로 「산또닝」을 매입하여 아동들에게 복용케 한 사실과 어제 감사보고에서 간호실의 좋은 성과 공휴일임에 불구하고 식수한 업적 등을 거양함은 물론이려니와 전교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다른 교장보다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점에 표창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된다.

◇김 성 균 의원

- 박두순 의원의 양 서부교장 표창에 삼청 하면서 금일 본 회의에서 표창장을 수여할 것을 동의집에서 첨가하여주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박두순 의원의 서부교장 표창에 찬성 발언하다.
- 동의를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천 철 수 의원 질의

- 4년전에 남교동시장 화재로 인하여 전당포 창고까지 소각되었는데 그 자리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모 직원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그 내용을 밝히다.

◇총무과장 김 귀 석 답변

- 정응표 의원의 말씀에 대하여
임시직원 결석이 10명이 있으나 이는 앞으로 채용 전형을 실시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 김상대 의원 말씀에 대하여
동에서 적십자 회비 입채한데 대하여는 본청에서 징수에 협조하여 이의 일소의 노력하고자 한다.

- 명남진 의원 말씀에 대하여

도선장 직원 처우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에 특근수당과 기술수당이 계상 되었으니 청구에 의해 지불하고자 함

- 김상태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4.19 관계로 근무태세가 이완되었다는 말씀은 「데모」나 사회혼란 등으로 동요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앞으로 관기확립에 각별한 지도를 하겠다.

(2) 공설 운동장을 2월 말일까지 설립키로 약속하였으나 3억의 소요 예산 미비로 승소 토지를 매각하는 데로 착용하고자 하오니

(3) 노무원 5명 임명에 있어서는 내용을 조사 후, 적절히 조치하겠다.

- 김성균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직원 근무 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본 청이나 동을 막론하고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겠으며

(2) 도서관의 면목을 일신하기 위하여 상무회를 이전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 박두순 의원 말씀에 대하여

관재계폐합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방침에 따르겠으며

- 이정권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으며

(2) 고용원 규정에 의한 노무원 배치에 있어서는 만부득이한 관계로 사무계 직원을 임명하게 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한다.

- 조양순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각 종 물품 등 계약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개입찰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으며 (2) 영구차 운전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분이 과거 시립병원에 있는 분으로써 형편에 의하여 그 당시 영구차가 해결될 것 같아서 총무과로 배치

케 된 것이니 이해 하여주시기 바란다.

(3) 남교동 시장 조례는 시급히 개정하겠다.

- 김일섭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도선장 운행시간 연장에 있어서는 고려하겠으며

(2) 죽교동 시장 매각 문제는 신중 검토 후, 확답하겠으며

(3) 동직원에 봉급을 지불치 못한 점은 미안하나 앞으로 직무과, 동이 협조해서 세수입 확보에 노력하겠다.

◇사회과장 박 찬 대 답변

- 명남철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징개(진개) 집합장소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위생사무가 경찰서 관장사무이며

(2) 도살장 부근 분뇨통 이전에 있어서는 연구하겠으며

- 김상태 의원 말씀에 대하여

청소 사무소 수선을 못한 것은 미안하나 앞으로 예산 조치가 되는 데로 수선하고자 하며

- 박두순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국민 주택 상환금 회수에 있어서 뽕때기를 단행하라는 말씀은 특별 고려하겠으며

(2) 성병 진료소장 문제는 시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성병 검사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 실시하겠으며

- 김창희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영구차를 대용한 추력 사용에 있어서는 영구차에 수반한 문제이니 그 후 해결되리라고 본다.

◇산업과장 김 원 배 답변

- 천철수 의원 말씀에 대하여

남교동 시장 화재로 인하여 다시 서정호 주임이 피해를 입었기에 가판옥을 건축 하였던 것이나 그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 2차 복구가 그 쪽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정 권 의원

- 아연실색이다. 서 주임이나 소방서장의 편리를 보아주고 그 외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업과장 대리 조 현 주 답변

(1) 온금동 발전소 근방에 우마를 제우는 것은 제주도에서 그 근방에 상륙시키게 되니 잠시 이용한 것으로 보며 발전소에 간이 가축시장 설치는 발전소가 복 구된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곤란한 문제라고 본다.

(2) 사료 배급에 있어서는 시 도 종축장을 정비 후, 적정 배급하고자 하며

(3) 남교동 시장의 표탈료에 있어서는 2호 시장의 처마 밑과 공지 사용료만 징수 하고 있으며

(4) 각 시장 영업시간은 상인 본위로 개선하겠다.

(5) 죽교시장 매각 문제는 연구 후, 처리하겠다.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김상대 의원 말씀에 대하여

상수도 확장공사에 수반한 계약 경신은 적절하겠으며

- 명남철 의원 말씀에 대하여

항동시장 앞 등 도로를 수리하고자 하며

- 박두순 의원 말씀에 대하여

짜보선창 수선비 문제는 도에서 서면지시가 있는 데로 조치하겠으며

- 김상대 의원 말씀에 대하여

현장 감독을 20일간이나 감독치 못한 것은 서류작성 관계로 그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주의하겠다.

◇시장 이 종 수 답변

- 정응표 의원 말씀에 대하여

임시직원 결원 보충문제에 있어 중앙이나 도의 방침이 신규 채용은 불허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실시한 시험합격자를 채용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음으로 이의 결원 보충을 하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 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 중이며 승인되는 데로 즉시 시행하고자 하며

- 김상대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상수도 확장공사 관계 계약 변경에 있어서는 김상대 의원의 말씀대로 제안에 노력하고자 하며

(2) 영구차 문제는 여러 의원과 동감이나 재검토 후, 실천에 옮기고자 하며

- 김성균 의원 말씀에 대하여

근로태세 확립 문제에 있어서는 금일 자로 인사 발령이 있을 것이 예상되니 이를 계기로 관기 확립하여 신상필벌 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며

- 이정권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죽교 2구동 하수구 뚜껑공사는 틀림없이 단시일 내에 시공코져 하며

(2) 노무원 임명은 전적동감이며 기회 있는 데로 시정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며 (3) 적십자 회비 상금 미지불한데 대하여는 조사 후, 엄벌하겠으며

- 김창희 의원 말씀에 대하여

호별세 5등 이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용케 하는 것도 좋으나 시의 공유물 사용 한계가 다르니 확답을 못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김 창 희 의원 질의

- 시에서 영구차를 구입치 않았음으로 인하여 영세시민이 곤란을 받고 있으니 이 불편을 덜기 위한 방도로써 어느 추력을 막론하고 추력으로 운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

◇김 상 태 의원 질의

- 부시장 및 각 과장의 이동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런 점을 알고 답변하니 오늘을 넘기기 위한 그런 답변은 안된다.

(1) 2월 말일까지 설치키로 된 공설운동장의 총무과장 답변이 애매하니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2) 도선 운행시간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한다고 하나 손님이 있느냐? 연구해서 답변하라.

◇명 남 철 의원 질의

(1) 도선 운행시간 연장으로 인한 수입과 유류 소모량과의 비교와

(2) 반년이 지났는데 도선장 직원 수당금 청구가 없으니 지불 못한다는 이유

(3) 남교동 시장부근은 포탈료를 징수 않는 다는 공고를 하라.

◇이 정 권 의원 질의

- 도선 운행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연구하여 답변하라.

◇정 응 표 의원

- 답변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오전 회의는 정회 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과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원

- 정회를 선언하다.

(하오 12시 55분 현재)

◇김 경 인 의원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2시 10분)

◇임 석 희 의원 질의

- 연동 수문 공사비 200만원조와 육거리 수기(水技) 계획도 시비로 실시하도록 함이 여하

◇건설과장 임 춘 흠 답변

- 수문 공사비는 다음에 추경 조치함이 가하리라고 보며 육거리 공사비는 도 보조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본다.

◇명 남 철 의원

- 사무감사와 관련 본 청 질의에 한하여 종결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과 삼청이 있었다.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교육위원회 서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박두순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교육청과 학교간의 장부 불일치한점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였으며 중앙학교도 전부 시정하였으며

(2)교육세 부과는 시와 교육위원회가 분리 부과하는 까닭에 징수에 애로가 있으며

- 임석희 의원 말씀에 대하여

세입 치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 지금 과년도 수입 4링(0.4%)밖에 않되니 그 이유 여하

◇명 남 철 의원 질의

- 세수입이 6할이나 반면 6개 국민학교 소보품비를 2할밖에 지불치 않은 이유와 그럼으로 해서 학부형으로부터 용지대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

◇교육청 서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학교에서 용지대를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세출면에 있어 100% 집행 못한 점은 세입의 결함이니 양찰하기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 학교에서 200환부터 4,500환씩 징수해서 월간 200만환에 달하니 이는 교육세 세입부진에 있으니 시민은 이중부담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

◇천 철 수 의원 동의

- 이 의원이 말씀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하여 북교 교장을 출석시킬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 사청이 있었다. 찬성 4표로 오청 없으므로 부결되다.

◇교육위원회 서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용지대를 징수는 각 지방이 다 7월 상순부터 교육위원과 상의해서 조사중이니 앞으로 정확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

◇명 남 철 의원 질의

- 각 학교에 용지대 배부를 하는 것을 보면 1일 200환 꼴밖에 되지 않으니 그 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학교에서 용지대 징수단속을 이제야 강구한다는 그 이유여하.

◇이 정 권 의원 질의

- 용지대가 처음이 아닐 뿐 아니라 100환선을 넘을 때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시민의 여론을 연구하라.

◇정 응 표 의원

- 학교에서 용지대 징수를 단속하라는 발언을 하다. (내용 생략)

◇조 양 순 의원

- 상동

◇김 상 대 의원 질의

- 중앙교 4학년 3반에서 용지대를 500환부터 3,000환까지 징수하는 반면 4학년 6반은 한푼도 징수치 않으니 그 이유여하

◇명 남 철 의원 질의

- 5·30현 세출 통계표에 의하면 교육위원 세출은 8할이며 반면 국민학교 소모품비는 1할밖에 안되니 그 이유여하

◇교육청 서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용지대 징수와 예산 집행의 불원할은 여러 해를 두고 계속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단속하고자 하오며 중앙교에서 500환부터 3,000환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니 조사 후, 선처하겠습니다.

◇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

- 마지막 뜨면서 직원 사기양양하는 방안으로써 신상필벌을 단행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중요문제가 수도문제라고 보는데 그 당시 건설과장이 말씀하기를 여러 의원들이 잘 협조를 하여주면 아마 임기까지는 끝날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니 이는 외국의 원조와 관련되는 까닭에 현금 완공되지 않았으나 하 전시장이나 이 건설과장이 수고가 많음은 물론이지만 박창호씨는 주야 불철 노고가 많았으며 중앙에서까지 데려가려고 하였다. 수도계장으로 진출하였으나 좌천이라고 생각지 않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였으며 특히, 가압양수장을 설치하여 격일제를 면케 되었음도 그 분 공이 지대하였음으로 수도행정의 공로를 치하하는 뜻으로 본 회의의 결의로써 금일 본 회의에서 박창호씨를 표창할 것을 긴급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었다.

◇김 남 진 의원

- 유달산 녹화에 있어서는 박 시장의 공로도 크나 그를 유치키 위한 감독 박길조씨도 성과 열을 다하여 불철 주야 노력하여 그 공이 다대하니 정의원의 동의집에 박길조씨도 아울러 표창할 것을 첨가한다. (동의집 수락하다)
-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남 진 의원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전체 시민의 요망이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못한 것을 3대 의회에서 계속하도록 시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 시장님이 목포부 부윤으로 계실 당시와 지금이 변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초대나 2대나 간절히 목포의 발전을 느끼나 재원이 문제로써 상수도 공사를 하는 오늘날 좌우 그 자리를 매꾸는 공사태도이니 10년 30년 전이나 마찬가지다. 3대 의회나 이 시장님께서 당시의 개화 발전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란다.

(1) 당시가 앞으로 육지로 발전함에 있어 시청소재지를 중앙으로 이전해서 시민이 거리나 경제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니 이는 초대부터 지금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한 문제나 교통부와 교섭해서 목포역 자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2대 의회의 요망임을 말씀드리는 바이며

(2) 또 당시의 관문인 입구도로가 너무 비좁고 아스팔트가 되어있지 않아 우일(비오는날) 같은 때 지장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3) 승소 토지가 15만평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불과 5, 6만평에 지나지 않는다. 산정동 공동묘지 평수가 약 20,000평이니 이를 이전하게 되면 주택지 등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실시치 못하게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공동묘지 이전은 2대 의회의 숙원이니 당대에 결실은 못하나 시작이라도 해 볼 소망이니 임기 내에 노력해서 공동묘지 처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며 이에 협조 있으시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김 창 희 의원

- 시정수행에 있어 과도기으로써 애로가 많을 것이나 할 일이 산적같이 쌓여 있으니 이를 반드시 실천하여 주실 것을 이 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자 한다.

(1) 중앙 도매시장 운영문제로 중, 소상공인들의 진정이 있어 이를 조사중이나 통고 수수료 등을 받아 폐가 많으니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이의 폐쇄용의가 있으신지 여부

(2) 존속하고자 할 때 업자 총망라해서 희망하면 대행기관을 교체하여 주실 수 있으신지와

(3) 승소토지 15만평을 세입이 없으니 주택지 외 분을 처분할 수 있으신지

와

(4) 도서관 도서를 확장하는 방도로써 시민으로부터 도서수집 운동을 전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하여주시기 요망한다.

◇김 성 균 의원

- 이 시장님의 시정방침의 개요를 듣고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지방인사도 아닌 분이 당시의 발전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거물급 시장으로써 행정수완이 탁월한 분이니 반드시 실천에 옮겨주시리라 믿는 바이다. 당시는 해방 후, 폐퇴일로를 걷고 있으니 과도기로 할 지라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니 발전책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방안을 세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상수도 공사에 있어서도 금 명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조가 중단하면 공사 추진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니 금명년간 80%의 진척을 이룩하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오며 간부급 이동이 오늘 발령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동이유와 그를 상부방침에 따라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하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질의

- 목포시 내의 급수사정을 보면, 서산동 일대와 죽교 1, 2 구동은 급수불능으로써 형편이 아니다.

(1) 앞으로 수도 행정수행에 있어 공설 또는 사설을 막론하고 인구비례에 의하여 공평한 수도행정을 바라며 서산동은 해결이 되어 다행이나 죽교동 1, 2구 특히 서부교나 덕인중은 급수가 안되어 처참하기 짝이 없다.

(2) 300mm철관을 시에서 자체부담 불능으로 여수로 빼긴 예도 있으니 내무부에 절충하여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3) 선창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부탁한바 있으나 그 후로 바다가 미어져 가니 이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바라며

(4) 유달산 산감의 표지를 하기 위한 제복을 지급하고 노무원 대우를 해서 생활을 보장케 할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5) 청소사무에 있어 3.15 선거 때 경찰서와 시가 협정하여 휘발유 5승씩 지급하고 쓰레기 매각과 운영을 순경에게 일임하고 있으니 그런 모순된 행정 이 있을 수 있는지

(6)위생사무소 직원 노 씨는 외정 때부터 근무한 자로써 실지 주임격인 역할을 하며 청소 관계는 박사이니 유대를 함이 여하한지

◇명 남 철 의원 질의

- 이 시장의 시정방침을 잘 들었다. 당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수도 공사로써 이를 조속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중앙의 내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부에 절충하여 많은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본 공사 수행에 있어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금년도 상환분 700만환을 어김없이 상환하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질의

- 시정방침 연술를 잘 들었다.

(1) 금반 임시 서기 62명을 해임 발령한데 대하여 인사 발령은 존엄성이 있어야 할텐데 어제 발령하고 도로 채용한 예가 있을 뿐 아니라 해임해도 꾸준히 근무하고 있으니 대단 의아스럽다.

(2) 공사 입찰에 있어 공고를 하였으면 반드시 시행하기 바라며

(3) 당시에 방출미가 방출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지시가 없으며 건의하기 바란다.

(4) 상수도 공사에 있어 금년도 설계인가가 없으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 제반 사업의 운영에 있어 종전방침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와 말씀드린다.

(1) 시립병원이 일년 적자 1,000만환인데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은 경우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2) 도서관 인건비 100만환에 수입은 4,000환임으로 불필요하다고 보니 이에 대한 재검토를 바라며

(3) 공동하양장 수지 균형이 맞지 않으며

(4) 도선장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5) 죽교동 시장과

(6) 연동시장도 재검토를 바라며

- (7) 중앙 도매시장 세입결함이며
- (8) 청소 사업 역시 마찬가지며
- (9) 공동묘지도 정리 공사비가 1,600,000환 소요되었으나 50,000환 수입밖에 없으며
- (10)동특에 있어 동정세율을 줄이기 위해 7동 가량 단축함이 어떠하며
- (11)인사 문제에 있어 신상필별 주의로 임하여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장

- 정회를 선언하다. (하오 4시 20분 현재)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4시 30분 현재)
- 표창장 수여(선언하다)

◇김 경 인 의장

- 서교 국민학교 양 교장에게 표창장 수여하다.

◇양 교장

- 인사 말씀하다. (생략)

◇김 경 인 의장

- 지방기사 박창호와 유달산 산감 박거조 양씨에게 각 각 표창장을 수여하다.

◇김 상 태 의원

- (1) 해안동에 무허가 건물로써 배를 댈 곳이 없고 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땅이 되었으니 이의 단속용의가 있어온지
- (2) 역전 하수구 준설공사와 뚜껑공사를 할 계획 유무와
- (3) 신광호텔 앞 도로와 제일은행 앞 도로에 아스팔트를 조속히 시공하여 주시기 바란다.

◇박 석 희 의원 질의

- 당 시의 관문인 용당동 도로 포장공사와 동 「노타리」에 시 안내도를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질의

(1) 뒤깨(뒷개)는 자연적인 토사로써 매립되어가고 있으니 준설공사를 부탁 하오며

(2) 국도선인 역에서 남교동 시장까지 도로포장 공사의 소요액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으니 조속 공사에 착수를 바라며

(3) 죽교 1, 2구동 수도 개정문제를 정희표 의원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정 응 표 의원 질의

- 서부교 옆 매립지 공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으니 조속 시공하여 주시기 바란다.

◇천 철 수 의원 동의

- 대 집행부에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하다.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시장 이 종 수 답변

- 여러 의원께서 장시간 말씀하신 것을 금 후, 시정수행에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 김남진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시 발전책에 대하여 100% 동감이다.

(2) 시 청사 이전을 지당함으로 이를 상부에 반영하겠으며

(3) 관문도로 확장은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4) 공동묘지 이전 문제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에 협조하고자 한다.

- 김창희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중앙 도매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록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그에 대처하겠으며

(2) 승소 토지 처분은 도 지시에게 의거 처분하고자 하오며

(3) 도서관 시설에 있어서는 시민의 복지행정 중심으로 확장에 중점을 두고 처 하오며 도서수집 운동도 회의로의 의견에 따르고자 한다.

- 김성균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시립병원 시설에 있어 필요하면 중앙에 교섭하여 확장에 노력하겠으며 이도 복지 행정 포함되는 것이다. 인선에 있어서는 원장 책임 하에 하도록 지시하였다. (2) 간부 이동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복무규율에 의거 상부방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3) 취사선택 문제는 새로운 간부가 부임하면 노력하겠다.

- 정응표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수도 증설에 있어서는 금 후, 인구 또는 세대의 비례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2) 죽교동 1, 2구동 수도 파이프 교체문제에 있어서는 자재는 있으나 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오니 예산이 허락하는 데로 시공하는데 노력하겠으며

(3) 쓰레기는 항구의 암이다. 앞으로 해안지대 도로포장 또는 가건축물 철거 등을 이용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4) 유달산 산감 제복을 마련하여 우대하는데 동감하며

(5) 위상사무소 업무 직원은 장기간 근무한 자 임으로 상의해서 우대하고자 하며

(6) 서부교 및 신탄장 개수문제는 예산 허용하는 데로 시공에 노력하고자 한다.

- 명남철 의원 말씀에 대하여

상수도 공사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 공사 승인서를 이미 제출하여 승인 될 것으로 보며 며칠 후, 기술 담당관이 현지 답사 1차 내청 할 것이며 94년도 분은 구두로는 내약을 얻어 5억환 이상을 요청키 위해 서류를 작성중이며 예정 년도에 끝날 것으로 본다. USOM상대는 1년씩 늦어지는 것이며 본 공사 추진에 노력하고자 한다.

- 김상대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6월 15일 임시 서기 62명 해면 될 자 중에서 채용한 자 1명도 없고 건설과장의 건의에 따라 인부로 채용토록 허락한바 있으며

(2) 공사 입찰에 있어 형편에 의하여 변경 공고하였으나 앞으로 준수하겠으며

(3) 방출미 배급에 있어 시장 회의에서 요청하여 방출케 되어 호별세 5등 이하에 대하여 1일 2.5홉씩 15일분을 배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이정권 의원 말씀에 대하여

재정 확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감이나 고충이 있다. 복지 행정수행에 있어 소비사업은 부득이한 형편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김상대 의원 말씀에 대하여

(1) 해안동 쓰레기 문제는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으며

(2)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할 것이니 앞으로 경찰 당국과 협력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3) 역전 포장 공사는 세입 확보되는 데로 시공하고자 하오며

(4) 역전 계천(溪川) 공사 불원 실시하겠다.

- 임석희 의원 말씀에 대하여

용당동 노타리에 즉시 안내도서 설치코자 한다.

- 조양순 의원 말씀에 대하여

뒷개천 준설공사는 당장 곤란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정응표 의원 말씀에 대하여

경찰관이 오물대를 매각 처분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니 조사 후, 시정하겠다.

- 명남철 의원 말씀에 대하여

공채상환도 조사 후 처리하겠다.

◇김 남 진 의원 질의

- 산정동 공동묘지를 성안해서 단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하여 5명 정도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다.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공동묘지 이전 추진위원으로 김남진, 임석희, 김상대, 천철수, 정응표 5명을 지명하다.

◇김 경 인 의장

- 대 집행부 질의 응답이 없으시면, 재청, 삼청이 있었다.

- 이의 없음으로 종결할 것을 선언하다.

※목포시 중요 재산 무상 양여의 건

- ※목포시 공익전당포 운영자금 기채 승인 안
- ※단기 4293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단기 4293년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단기 4293년 목포시 동정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단기 4293년 목포시 도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단기 4293년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단기 4293년 목포시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단기 4293년 목포시 재건축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단기 4293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정 응 표 의원

- 부의안건 제 2항부터 제 11항까지 일괄 상정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었다. 동의를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내무위원회 종합 심의보고
- 부의안건 제 2항부터 제 11항까지 원안 무수정통과를 보았습니다.

◇김 창 희 의원

- 본 부의안건 제 2항부터 제 11항까지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와 승인 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상 대 의원

- 찬성이나 사업장 수입이 소홀하니 앞으로 6개월간 사업장 수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4청한다. 동의를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김 경 인 의장

- 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교육 위원보선에 앞서 원만한 타합을 위하여 잠시 휴회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과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장

-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6시 5분까지 휴회할 것을 선언하다.
(하오 5시 42분 현재)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6시 23분 현재)

◇총무과장 김 귀 석

- 교육법의 교육 위원 선거 관계 조문 설명하다.
(재석의원 15명)

◇김 상 대 의원

- 감표위원 2명을 선출할 것을 동의하다.

◇김 경 인 의장

- 감표위원 선출에 이의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김상태, 김상대 의원 2명을 지명하다.
- 투표결과 : 2선거구 - 김종식 10표, 금선희 4표, 최영선 1표
3선거구 - 최영선 13표, 강난수 1표, 제갈형용 1표
4선거구 - 안홍선 2표, 금선희 3표, 이돈채 5표, 강난수 3표
5선거구 - 박찬원 11표, 강난수 2표, 차남하 2표

◇김 경 인 의장

- 2선거구에 김종식, 3선거구 최영선, 5선거구에 박찬원 각 각 당선을 선포
함과 아울러 4선거구에는 재차 투표할 것을 선언하다.
- 제 2차 투표결과 : 이돈채 7표
강난수 6표
김선희 2표

◇김 경 인 의장

- 제 2차 투표에서 3분의 2가 못되니 다(득)점자 2명중에서 결선투표 할 것을 선언하다.
- 제 3차 투표결과 : 이돈채 10표, 강난수 5표

◇김 경 인 의장

- 제 4선거구에 이돈채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남교동 시장 복구공사 관계 청원서

◇김 경 인 의장

- 방금 제출되었으므로 상정함을 선언하다.

◇총무과장 김 귀 석

- 청원서 낭독하다.

◇김 성 균 의원

- 본 청원서를 소개함에 있어 청부업자와 하청자와의 거래 관계이며 시청공사로 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으로 소개의원에게 해결을 위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 경 인 의장

- 소개 의원 2명에게 처리를 위임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처리할 것을 선언하다.

◇김 상 대 의원

- 4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임기 연장이 미결이니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법 등 85조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김 경 인 의장

- 폐회를 선언하다.

(하오 6시 52분)

- 폐회식이 있었음. (식순 생략)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 함.

단기 4293년 7월 1일

시의원 김창희

시의원 김상태

작성자 서기 배문봉